

보도 일시	즉 시	배포 일시	2023. 3. 21.(화) 16:30	
담당 부서	대구지방기상청 관측과	책임자	과 장	이용태
		담당자	주무관	최미희
053-282-0142				

대구, 오늘(3월 21일) 벚꽃 개화 - 작년보다 5일, 평년보다 8일 일찍 개화-

- 대구지방기상청(청장 직무대리 김동수)은 대구 벚꽃이 3월 21일 개화했다고 발표했다. 이는 작년보다 5일, 평년보다 8일 빨랐으며 대구에서 벚꽃 관측을 시작한 1924년 이후 두 번째로 빠르게 기록하였다. 대구기상청은 “올해 벚꽃이 평년보다 빠르게 개화한 이유는 대구 3월 평균기온이 10.8℃로 작년보다 1.1℃, 평년보다 2℃ 높았으며 대구 3월 일조시간이 167시간으로, 작년보다 38시간, 평년보다 31.8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다” 라고 설명했다.

【대구 벚꽃 개화·만발 현황】

구분	2023년	2022년	평년 (1991~2020년)
벚꽃 개화	3.21.	3.26.	3.29.
벚꽃 만발	-	3.30.	4. 2.

- ※ 개화 관측 기준: 대구지방기상청(대구시 동구 호동로2길 10) 내 관측 표준목을 기준으로, 표준목에서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를 ‘개화’로 관측한다.
- ※ 2023년 봄꽃 개화 현황: 벚꽃(3.21.), 진달래(3.15.), 개나리(3.12.), 매화(3.1.)
- ※ 벚꽃 개화 극값: 2002. 3.20.(1순위)

- 벚꽃 개화는 기온과 일조시간의 영향을 받으며 그 해의 기상조건에 따라 달라진다. 통상적으로 개화 후 약 일주일 이후 벚꽃이 활짝 핀다.

